

‘빈 용기수거 · 안전한 보관’ 작보제의 또 다른 안전성

사용 및 보관법 준수로 오용사고 예방, 작은 방치가 커다란 사고 유인하는 불상사
‘빈 병 · 봉지류’ 수거로 영농철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농촌 환경도 보존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그 시간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라 했다. 어느새 수확의 계절을 훌쩍 넘긴 동절기 초입이다. 영농기 내내 들녘을 누비었을 농업인에게 더 없이 쉽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다.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는 법. 우리 농업인의 겨울은 과연 여유롭고 넉넉한 겨울인가 걱정이다. 게으름에는 늘 빈손을 내어 주지만, 부지런함에는 단 한번도 대가를 쥐어주지 않은 적이 없는 게 자연 아닌가?



박학순 이사
한국작물보호협회 교육홍보부

‘폐봉지류’ 수거대상 포함, 제도 이해 부족

영농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활약을 펼친 작보제 의 운명은 수확기 이후 들녘에 남겨지느냐, 아니면 주인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안전한 곳에 처리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다. 그러므로 작보제를 사용하고 난 뒤 빈 용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및 수로 등에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소중한 자원의 낭비이다. 또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작보제 안전성을 희석시키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호시탐탐 노리는 일부 언론과 반대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용 후 빈 병과 봉지류 등의 용기는 절대로 버리지 말고 모두 마을 수집장에 모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무상제도를 거듭하던 작보제공병수거제도는 1987년부터 정부와 업계의 관심 속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 그동안에는 폐 봉지류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각되는 등으로 인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8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폐봉지류수거사업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간혹 작보제 판매 이후 빈 용기수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농업인의 서면을 통한 질타를 접하거나, 교육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을 접할 때면 홍보 및 이해부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기별 수거보상비 지급기준을 보면 △유리병이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봉지류 2,760원/kg이며 병류는 재활용업체에, 봉지류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다만, 폐 봉지류가 수거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이 농업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물론 정부측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협에서의 수거협조 등이 어우러져야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작보제의 고유목적과는 무관하게 쓰다 남은 약제의 부적절한 처리나 잘못된 보관관리에 기인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분명 오용사고 예방을 위해 진력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물론 기대에 정면 배치되는 사고임에 틀림없다. 작고 사소한 방치가 예견하지 못하는 커다란 사고를 유인하는 불상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여건·방제현실’ 시인 인정해야

그러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특히 사용하고 남은 약제의 보관을 잘 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먼저, 작보제는 전용보관 상자를 만들거나 헌 캐비닛 등을 이용, 자물쇠 장치를 하여 보관함으로써 어린이나 글을 모르는 노약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작보제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의



약품 또는 식품,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분하여 자물쇠를 채우고 보관해야 한다.

셋째, 약제는 본래의 농약용기에 넣어 라벨(포장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용도별 구분과 함께 최소한 상표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적어 보관토록 한다. 넷째,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 등 제초제와 고독성약제는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오용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보관중인 약제는 만에 하나라도 용기의 부식이나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쓰다 남은 약제는 잘못 사용하거나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본래의 용기가 아닌 박카스병 또는 콜라, 사이다병 등과 같은 다른 병에 넣어 보관하면 어린이나 술 취한 사람, 글을 모르는 노약자 등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루 밑이나 헛간 등에 그냥 보관하면 어린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잘못 마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이런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하고 있지만 안전 먹거리에 대한 불안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다. 농업인이 첨단 자재인 작보제사용을 망설이거나,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만큼 불행한 현실은 없다. 이 같은 현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이 올바른 사용 및 보관법을 준수하여 오용에 의한 대소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농업 여건과 방제해야 하는 현실을 시인하고 이해해야 한다. 작보제의 효능을 농업인만 알아서도 안 된다. 수확을 끝낸 갈무리 즈음, 또 다른 영농의 시작이 촌음(寸陰)임을 알기에 여념이 없다. ㉞